

2015 세계인권도시포럼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015년 5월 15일~18일

주제회의 VIII: 환경과 인권

개발의 역습: 대형 댐과 토착민

코르 딜레라 주민연대 (CPA) 사무총장

아비가일 B. 아논고스 (Abigail B. Anongos)

가. 개요

국제댐위원회(ICOLD)에 따르면, 지난 60여년간, 전 세계에 약 4만 개 이상의 대형 댐이 건설되었으며, 이들 댐은 '하상(河狀) 및 유수량 조절력(流水量 調節力)'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 이래, 약 3만 5천 개 이상의 대형 댐이 건설되었으며, 그 중에서 1만 9천 개 이상의 댐이 중국에 있다(1949년 이후 건설). 인도는 독립 이후 약 3천 개의 대형 댐을 건설했으며, 미국, 일본 및 구 소련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대형 댐은 환경과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몰지구에 거주하는 토착민의 대규모 이주를 동반하는 댐 건설사업은 해당지역 내에 빈곤과 사회혼란을 초래해 왔다. 인도의 경우, 지난 40년 동안 약 2천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으며, 그들 중 약 75%가 정착할 곳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거의 모든 대형 댐이 토착민 거주지역에 건설되었다. 그 동안 아시아 각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대형 댐 건설사업은 수몰지역의 경제와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낳았다.

나. '피의 댐(Bloods Dams)'과 토착민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의 수 많은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갖는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수자원으로 말미암아 전후 복구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개발"은 곧 경제성장을 의미했고, 경제성장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 댐은 이른바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이며 또한 환금작물 재배를 위한 관개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그러나 댐은 토착민의 삶과 생계수단- 토지, 가옥, 식량, 화목, 정령수(精靈樹), 성림(聖林)-을 빼앗아갔다.¹

지난 2000년, 세계 댐 위원회(WCD)는 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물지구 내 토착민이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 (FPIC)'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 놓았다. 일례로, 댐 건설에 앞서, 이주민은 향후 양질의 일자리를 약속 받지만, 그와 같은 약속은 일부만 이행되거나 또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토착민 이주는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문제를 낳고 있다. 토착민의 일상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그리고 그 속에 남겨진 모든 것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그들에게 '땅은 곧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사업에 따른 대규모 주민이주는 일종의 '문화 말살(ethnocide)'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규모 댐 건설이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제금융기관, 은행 그리고 민간기업은 여전히 토목공사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수력발전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수물지구 내 토착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추진되는 대규모 댐은 '피의 댐(BLOOD DAMS²)'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세계 댐 위원회의 보고서가 지적했던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의 한 구절은 우리에게 큰 여운을 남기고 있다.

¹ Asia Indigenous Peoples Pact. Development Aggression as Economic Growth

² Ibid

“토착민 공동체의 경제가 몰락한다.”...농사지을 땅이 부족하고, 일자리도 부족하며, 주거환경은 열악해졌다. 한 때 흔했던 화목과 마초는 이제 귀한 것이 되었으며, 주민들의 열악한 영양상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아직도 아시아 각국에서 대형 수력발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 (FPIC)'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수 많은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 토착민 조약³(AIPP)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인도 북동부

“인도의 발전소”라 불리는 인도 북동부지역에는 현재 168개의 대형 댐이 가동 중에 있으며, 최소 48개의 댐과 약 900여 개의 소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개발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아닌 현지 '부족민'이다. 마니푸르주 바라강에 건설예정인 티파이무크댐은 약 311 km²의 수몰지구 내에 위치한 90여 개 마을, 1,310호, 1만 5천명의 젤랑그롱족과 마르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또한, 27,242 헥타아르의 삼림과 농경지가 침수될 것이다. 시앙강에 추진 중인 시앙강 하류 수력발전소계획은 23개 마을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아디족과 갈로족의 생계분만인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 그리고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기타 20여 부족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메콩강

세계에서 가장 긴 강들 중, 하나인 메콩강은 그 수계에 댐이 건설되지 않아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 그러나 라오스는 메콩강에 약 12개의 댐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준비공사에 돌입했다. 중국에 속하는 메콩강 상류지역에는 약 17~19개의 댐이 가동 및 건설 중이거나 또는 건설예정인 있다. 이러한 댐들이 메콩강 생태계와 강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총 길이 2,800Km의 살원강의

³ Ibid

상류(중국어명, 怒江)와 하류(버마)에는 각각 13개와 5개의 대형 댐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댐들은 수력발전과 더불어 태국에 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한편, 버마와 태국 국경지대를 따라 13개 부족, 6백만 명의 버마인이 살원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바탕 아이댐, 뱅고댐 그리고 바컨댐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카얀족, 케난족, 카장족, 케라비츠족, 런 바왕족, 이반족, 페난족, 비다여족, 크다얀족, 트링족 및 우킷족의 삶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라왁주의 토착민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현재 추진 중인 12개 대형 댐 건설사업의 전면 중단 및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컨 다목적댐은 카얀족, 케난족, 우킷족 그리고 파넨족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2만 3천 헥타아르의 처녀 우림을 포함하여 총 6만 9천 헥타아르의 삼림을 파괴했다. 또한 1982년 완공된 바탕 아이 댐으로 인하여 26개 마을에 거주하던 3천 여 명의 이반족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주민들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주민들 사이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만 갔다. 이러한 까닭에 뱅고 댐 수몰지구에 거주하는 약 250여 세대, 1,500여 명의 주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이주계획을 거부하고, 댐에 수몰되지 않은 8.72 km²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키리강(Kiri River) 상류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히말라야

세계 8대 고봉이 위치한 히말라야는 양 극지방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빙원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히말라야는 수백만 아시아인의 삶이 있는 주요 강들-브라흐마푸트라강, 인더스강, 갠지스강, 그리고 이리와디강-의 젖줄이 되고 있다. 또한 히말라야에서 발원하는 수백 개의 강과 지천은 수력발전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현재, 파키스탄, 인도, 네팔 및 부탄은 향후 20년 간 수백 개의 댐을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남아시아는 세계 최대 댐 밀집지역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을 틀어막고 댐을 건설함으로써 이 지역의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사람들 또한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특히 소수부족이 가진 문화와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필리핀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다. 필리핀의 대형 댐: 토착민의 권리침해, 수자원의 사유화

필리핀 정부와 대형 광산업체는 수력, 화력 및 지열발전소 건설을 골자로 하는 야심 찬 에너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댐 건설이 불러올 각종 부작용과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결국 필리핀의 토착민이다. 암복라오댐, 빙가댐, 산 로케댐, 마갓댐, 판타방안댐, 카섹난댐, 풀랑기 IV 댐을 비롯한 여러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물지구 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그들의 문화도 버려야만 했다.

현재, 총 149 개의 수력발전소와 16 개의 지열발전소계획이 완료되었거나 공사 중, 또는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프로젝트는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토착민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댐을 향한 끊임없는 집착은 토착민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는데, 특히 민다나오 섬 3 개 주를 가로지르는 풀랑기댐은 루마드족과 모로족이 사는 23 개 마을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하류로 흘러야 할 물이 댐에 갇히면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였으며 강에서 얻을 수 있었던 많은 식량자원도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댐 주변에 위치한 광산과 농경지에서 방출되는 독성화학물질로 인하여 일부 댐의 물은 사람과 동물이 마실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코르 딜레라 산맥 뱅게트에 위치한 필렉스 광산과 레판토 광산은 강물을 끌어와 광미사 저류지를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댐 주변 강에는 매몰과 침강작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하천 제방이 침식되고 홍수가 빈번하게 되었다. 1950 년대 암복라오댐과 빙가댐 건설 이후, 필리핀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형 댐 건설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⁴ 그러나 댐 건설계획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왔으며 특히

⁴ Philippine Task Force on Indigenous Peoples Rights. March 2014. Let our Rivers Flow

토착민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아왔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했었던 치코강 댐 계획은 칼링가와 본톡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집단행동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 밖의 많은 댐 건설은 강행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토착민과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저항을 받아야만 했다.⁵

필리핀 정부는 코타바토에 풀랑기 V 댐, 리잘과 퀘존에 부키드논, 칼리와 또는 라이반댐, 파나이에 할라우댐 그리고 따락에 발록-발록댐 등을 비롯하여 더 많은 대형 댐 건설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필리핀 정부와 맺은 차관계약을 통하여 건설되는 비사야스 칼리노그의 할라우강 다목적댐은 일로일로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껏 댐 건설에 따른 피해자인 투만독 토착민과 그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 (FPIC)'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논의되었으며,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규모 댐으로도 관개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국토착민연합(KTRIBU)은 토착민 거주지역 내에 건설 중이거나 또는 건설예정인 대형 댐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5 개의 수력발전계획 및 1 개의 지열발전계획, 그리고 코르 딜레라 칼링가에 6 개의 수력발전소 건설계획
- 투디야수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발생한 남 다바오 토착민 타가바와-루마드족의 이주
- 2 만 1 천명에 달하는 아그타, 두마갓 및 레몬타도족 농민들을 이주시키고 리잘과 퀘존의 8 개 마을이 수몰되는 라이반 댐 건설계획 승인
- 산 호세, 마뭇 바강라이의 발록-발록 다목적 댐 건설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아이타족 500 명의 이주

⁵ Ibid

- 민다나오섬 부키돈, 아구산 델 수르 및 북 코타바를 가로지르는 풀랑기 V 댐은 루마드족이 거주하는 수천 헥타아르의 농경지와 23 개 마을 및 모로족이 거주하는 19 개 마을에 영향을 주고 있다.
- 누에바 비스카야의 비듀언 댐 건설계획은 카시부의 일롱고트족, 부칼로트족 및 잉고로트족에게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 댐은 카가얀강의 지류인 디듀언 강물을 끌어올 것이다.
- 동 민도로 3 개 시에 건설예정인 댐 3 개: 봉가봉의 봉가봉댐, 바코의 알라그댐 그리고 나우한의 바그토강 댐. 이 3 개의 댐은 총 30 만 헥타아르의 토지와 20 만 명의 망안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대규모 댐들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토착민과 그 지원단체는 댐 건설이 불려올 악영향을 우려하여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토착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도의 (FPIC)'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댐 건설 계획들은 댐의 상류와 하류에 거주하는 토착민에게 합법적인 FPIC 절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통과되곤 했다.

토착민 인권과 그 공동체의 권리침해

정부는 토착민과 그 지원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칼링가와 두마갓에서 시위대를 이끌었던 마크클리잉 두락(Macliing Dulag)과 니가노르 델로스 산토스 (Nicanor delos Santos)는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무력사용은 광산, 농장, 댐 또는 기타 에너지프로젝트로부터 조상의 땅과 자신들의 삶을 지키려는 토착민에게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토착민은 자신의 땅과 재산에 대한 집단적 권리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반란진압작전(*Oplan Bayanihan*) 과정에서 시민권과 참정권까지 박탈당하였다. 정부의 진압은 폭격, 방화, 집단학살,

식량공급중단, 고문, 임의체포, 불법감금, 비사법적 처형 그리고 강제추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⁶

KATRIBU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6명의 아동을 포함한 총 44건의 비사법적 처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주에서 총 1,730호의 토착민을 강제 소개한 18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총 9,754명의 토착민 학생들이 학대 및 감금당한 16건의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코르 딜레라, 아구산 델 노르테, 슈리가오 델 수르, 사랑가니 및 부키드논에서는 토착민 지도자들이 조작된 혐의를 뒤집어 쓰기도 했다.

코르 딜레라의 사례: 대형 댐의 영향⁷

벵게트의 광산과 댐은 칸카나이와 이발로이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했다. 그 피해는 비단 심각한 환경파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토착민의 집단적 권리침해에 이르고 있다. 벵게트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기업형 광산과 대규모 댐은 환경오염과 농업경제파탄 그리고 대규모 이주민 발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1. 전통적 삶의 터전과 방식을 떠나야만 하는 토착민 이주정책

칸카나이와 이발로이에 기업형 광산과 댐이 들어서면서, 토착민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땅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만 했다. 암복라오댐은 500헥타아르의 수몰지구와 200호의 이주민, 빙가댐은 150헥타아르의 수몰지구와 100호의 이주민을 낳았으며, 산 로케댐 건설과정에서는 4,000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⁸

⁶Ibid

⁷Cordillera Peoples Alliance. Case Study on the Impacts of Mining and Dams on the Environment and Indigenous Peoples in Benguet, Cordillera, Philippines. August 2007

⁸Cordillera Peoples Alliance at Philippine Task Force on Indigenous Peoples Rights. Karanasan at Aral Mula sa Pakikibaka Laban sa San Roque Dam. 2013.

댐이 건설되면서 삶의 터전이 수몰되었다. 댐 건설로 터전을 잃게 된 가족의 후손들은 댐 분수령 지역의 불법 점유자 내지 기타 사유지의 정착민으로 취급받았다. 정부로부터 광산개발에 관한 특허장을 받은 광산회사들은 토착민의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무력화시켰다.

광산개발은 토착민에게서 전통적인 생업(쌀농사, 채소재배, 이주농경, 화전, 사냥, 목축)을 앗아갔다. 수계가 매몰되면서 하천변 쌀농사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표면이 함몰된 까닭에 채소농사도 여의치 않았다. 전통적인 소규모 광산업과 사금채취업 또한 대형 광산과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 산 중턱에 커다란 구멍이가 발생하거나 토지가 함몰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산복(山腹)전부가 유실되기도 했다. 그 결과 토착민의 밭자리와 사냥터가 사라졌다. 강물이 오염되어 전통적인 물고기 잡이가 불가능해졌으며, 댐 저수지의 상업 양식장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칸카나이와 이발로이 지역 토착민에게 땅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재 근거였다. 그러나 고향을 버리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결정권과 문화적 단일성 유지를 위한 집단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

2. 하상침전

광산개발 및 댐 건설로 인한 벵게트 지역의 하상 침전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암복라오댐과 빙가댐은 대형 댐이 가져오는 피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댐의 저류지의 침전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아그노강 상류 일대의 논이 점점 더 잠식당하고 있다. 암복라오댐의 경우, 댐의 가장자리로부터 17 킬로미터에 떨어진 곳의 수위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방가오족과 발락박족 공동체는 아그노강의 늘어나는 토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침전작용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이발로이 지역의 주민들은 댐이 문제의 원인임을 잘 알고 있다. 댐 건설이전에는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침전물이 늘어나는 사례가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댐은 상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하여 침전작용을 가속화시켰다.

침전물은 1 차적으로 댐의 저류지에 가라앉지만 이것은 곧 유입수와 상류의 유속까지 저하시키는 효과를 내어, 중국에는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⁹

1992년 필렉스광산의 광미사 저류조가 붕괴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 8천만 톤의 광미사가 강으로 유입되어 관개설비와 강 하류에 큰 피해를 입혔다. 광산회사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5백만 페소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2001년 필렉스광산의 또 다른 광미사 저류조가 태풍의 피해를 입어 붕괴되었고 그 결과, 산 마누엘, 비날로난, 팡가시난의 농경지에 수 미터에 달하는 독성 침전물이 쌓였다. 한편, 필렉스광산 측은 이 사고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2012년, 또 다른 저류조 3개가 추가로 붕괴되어 2천만 톤의 독성 폐기물이 발록과 아그노강으로 유입되었다.¹⁰

레판토광산 저류조에서 발생한 침전물은 아브라강 25킬로미터에 걸친 465헥타아르의 농경지를 휩쓸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자사의 5A저류조가 침전물의 유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IP 공장 배출구부터 5A 광미사 저류조까지의 총부유고형물(TSS)과 총용존고형물 (TDS) 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침전물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레판토광산에서 유발 되었음을 입증한다¹².

3. 수질 및 토양 오염

벵게트의 대규모 광산 역시 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산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이 함유된 광미사를 저류조로 퍼 올려 보관한다. 그런데, 우기에는 강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류조의 수위가 상승하고 저류조 구조물은 더 큰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광미사가 포함된 폐수가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거나 또는 회사가 저류조 붕괴를 막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강으로 흘러 보내고 있다. 결국 어떤 경우든지, 오염물질은 인근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⁹ Jacqueline K. Carino. A case Study of the Ibaloy People and the Agno River Basin, Province of Benguet, Philippines. Presented during the Consultation on Dams, Indigenous Peoples and Ethnic Minorities. Geneva, Switzerland. August 1999)

¹⁰ Croft

¹¹ APIT TAKO.

¹² STARM

2002년 9월, 환경조사위원회(EIM)가 '아브라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CPA 및 토착민 지원단체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레판토광산 하류의 흙과 물에서 다량의 금속물질(납, 카드뮴 및 구리)이 검출되었다. 아브라강에서 채취한 시료수에는 중금속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산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EMI 보고서에 따르면 CIP 공장 배출구부터 5A 광미사 저류조 사이의 강물에 포함된 용전산소량은 2 mg/L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그 어떠한 수생생물도 살아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기 동안, 인근 주민들이 "썩은 계란" 냄새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산에서 망안강으로 흘러 드는 광미사에 황산이 포함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5A 광미사 저류조에서 망안강 하류 사이의 여러 지점에서 측정된 총부유고형물(TSS)과 총용존고형물(TDS)량 또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¹³

4.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

수질오염, 대기오염 그리고 토양오염은 사람들의 신체에 독성물질을 축적시킨다. 광산주변의 주민들과 광산근로자들은 천식이나 기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다.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은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청소년과 노약자가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¹⁴

1985년, 레판토는 구리광 정련소를 설치하였다. 정련소는 망안의 파코, 코랄로 그리고 카비텐 등 3개 바랑가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지역 주민들은 작물이 비정상적으로 고사하고, 가축은 질병을 앓거나 폐사하며, 주민들 사이에는 천식이 증가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결국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회사는 정련소의 문을 닫게 되었다¹⁵. 광산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증기를 흡입한 망안지역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였다: 두통, 어지러움, 기침, 가슴통증, 코와 눈에 자극. 그 밖에 피부 가려움과 발진, 설사와 같은 증상도 보고된 바 있다.

¹³ STARM

¹⁴ CA and PIPILinks

¹⁵ STARM

아브라강물을 식수로 이용한 일부 주민들의 경우,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로 말미암아, 주민들은 강물을 꺼리게 되었다. 그리고 광산지역 주민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암 발병에 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¹⁶

1. 동식물 감소, 생물다양성 그리고 식량위기

아브라강 수계에는 47개 속(屬), 177종(種)에 달하는 난초를 포함하여 총 144개과(科) 1,689종(種)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고유종(固有種)으로 분류된 식물 중 절반이상(51.2%)과 난과 고유종 중 60.7%가 여기에 포함된다. 벵게트강 유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식물다양성이 월등히 높은 곳이다.

2002년 9월, EIM는 레판토광산과 직접 연결된 수계와 타 수원지에서 발원한 지천 사이의 큰 차이점에 주목했다. 2001년 3월, 회사는 양식장을 개장했지만 4일만에 모든 치어가 폐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우, 뱀장어와 같은 수생종의 개체수가 급감했다. 어획량은 감소했고, 주민들은 병에 걸렸거나 기형인 물고기를 발견했다.

광산회사는 우기 동안에 광미사를 강으로 흘려 보냈고 그 결과 어류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역주민들은 강에서 잡은 물고기로 식량의 상당부분을 충당했었으나, 어류자원이 고갈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삶에 큰 변화를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이 붕괴되면서 생물다양성도 크게 훼손되었다. 한 때, 이 지역에 번창했던 조류와 식물이 자취를 감추었다. 개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조류는 다음과 같다: 파가우(pagaw), 투크로(tuklaw), 칸나웨이(kannaway). 카만트레스(kamantires) 및 부르발라(burbala)와 같은 식물의 개체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¹⁷

¹⁶ STARM

¹⁷ STARM.

라. 토착민의 대응

각종 산업과 산업형 농업 또는 에너지개발계획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전 세계의 토착민들은 각자의 장단기 자구책을 내 놓고 있다. 그들은 합법적인 수단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자신들의 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봉쇄, 가두시위 또는 피켓 시위와 가은 직접적인 행동; 동일한 입장에 놓인 타 지역의 주민 및 그 지원단체와 연합; 정부기관에 대한 로비; 지역적, 전국적 또는 국제적인 홍보 및 교육캠페인; UN 토착민 권리에 관한 상임포럼(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Peoples Rights)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업.

한편, 소수력댐이 대형 댐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컨대, 코르 딜레라의 차퓨센 망굼-우마(CMO)가 추진했던 소수력발전 프로젝트(MHP)를 지역 공동체 기반의 전력공급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MHP 는 지역 주민들이 힘으로 필요한 모든 전력(조명, 도정, 사탕수수가공, 금속가공 및 목공)을 자급하고 빈곤층에게도 그 혜택을 나누어주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전 단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체적인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전통적인 품앗이(ubfo)를 통하여 동원된다. 따라서, 각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아래, 각자가 가진 재능을 십분 활용하고 교환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를 재건할 수 있다.¹⁸

한편, 일부 지역의 토착민들은 외부인으로부터 자신들의 토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항은 결국 자주권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 결론 및 제언

¹⁸ Hapit,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Cordillera Peoples Alliance. 3rd Quarter 2005. A basic Service to the People: The Chapyusen Micro-Hydro Project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댐 건설로 인한 피해가 댐이 가져오는 혜택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댐은 극소수의 기업에게 이득을 주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왔다.

댐은 인위적으로 물길을 돌려놓고 또한 유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강을 토대로 살아가는 수 많은 사람들, 특히 토착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낳는다. 전통적인 토착민 사회는 자급자족이 가능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댐 건설은 토착민들의 대규모 이주를 유발했으며, 결국 고향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진 이주민들은 빈곤과 실업으로부터 고통 받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이주민들은 댐에서 생산된 전기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¹⁹

과학적 연구 또한 댐이 비 경제적임을 밝혀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대형 댐의 경제성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대형 댐이 사회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막대하고, 그 건설비용은 댐이 가져오는 혜택을 상회한다. 또한 대형 댐은 매우 긴 건설기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다시 말해서, 댐은 비단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파탄 내고 있다. 댐은 경제성이 없다. (국제하천 2014)²⁰

필리핀 코르 딜레라의 칸카나이와 이발로이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토착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개발패러다임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동안의 각종 보고서와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유엔, 국제금융기관, 광산 및 댐 개발사 그리고 필리핀 정부에 던지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사회는 환경과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그러한 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더욱 강력한 수준에서 민간기업과 정부 모두를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감시시스템과 더불어 정부, 국제금융기관 또는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정립된 기준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¹⁹ TFIP

²⁰ Ibid

2. 추진 예정인 개발계획이 해당 지역의 문화,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는 토착민들이 전통적인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성소(聖所), 땅 그리고 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CBD)의 Akwé: Kon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개발사업이 토착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정부와 국제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를 바라기 보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3.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들은 해당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국가, 특히 그 내부의 토착민 사회에 피해를 유발할 경우, 벌금부과와 같은 형태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4. 개발로 인하여 자신들의 토지와 재산에 관한 권리와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또는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를 입은 토착민들이 민간기업, 정부 또는 국제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는 국제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광산 및 댐 개발로 인하여 뱅게트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금전보상, 지속 가능한 생계수단, 대체 농지, 고용 및 일정한 소득원 제공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상과 배상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광산과 댐으로 인하여 파괴된 토지와 강을 복구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되어야 한다.
6.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금전보상이나 생계수단제공은 토착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구적인 자연파괴를 유발하는 대규모 광산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내구성이 빈약한 광미사 저류조에 대한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그 대신,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소규모 광산업과 공동체 기반의 소수력발전소 사업을 촉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7. 광산업 및 에너지산업 민영화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토착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밝혀진 민영화 사업은 수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광산업 정책은 광산국유화를 골자로 하여, 일자리창출, 식량안보, 경제안정화 그리고 환경파괴 완화 및 파괴된 환경복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8.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원아래 추진 중인, 파아니섬 할라우 다목적댐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한국 측 환경 및 인권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